

'4연패' 광주FC, '무승' 전북현대 잡고 반등 노린다

내일 전북과 전주 원정 경기...주장 안영규 '퇴장 악재' 겹쳐 아사니·가브리엘·빅틀 앞세워 공격 축구로 분위기 반전 노려

광주FC가 전북현대와 벼랑 끝 승부를 벌인다. 광주는 13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가 전북과 K리그1 2024 7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벼랑 끝에서 만나는 두 팀이다. 광주는 화려한 공세로 개막 연승을 달리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포항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작된 패배가 대구전, 인천전 그리고 김천상무전까지 이어졌다. 2연승 뒤 충격의 4연패에 빠진 광주는 8위까지 내려앉았다. '전통의 강호' 전북의 상황 역시 좋지 않다. 전북은 개막 후 6경기에서 시즌 첫승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3루 3패로 최하위에 자리한 전북은 페르레스쿠 감독과도 결별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전북이 앞선다. 광주는 2015년 이후 전북 안방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 여기에 광주의 전력도 완벽하지

않다. 지난 시즌 탄탄한 수비를 보여줬던 광주는 올 시즌 6경기에서 10실점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수비 핵심 선수들도 이번 경기를 뛰지 못한 다. 앞선 인천전과 김천전에서 '수문장' 김경민과 '주장' 안영규가 연달아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 악재'까지 겹쳤다. 광주의 수비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이정호 감독은 '화력'으로 위기를 넘겠다는 각오다. 이정호 감독은 앞선 김천전 패배 후에도 "연패를 하더라도 골 넣는 축구를 하겠다"며 한 골 내주면 두 골을 넣는 '광주 스타일'을 강조했다. 지키는 축구가 아닌 이기는 축구를 이야기한 광주에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활약이 절실하다. 지난 김천 원정서 뒤늦게 시즌을 시작한 아사니 가 교체 멤버로 들어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가

브리엘과 이희균 콤비는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 냈다. 시즌 전 이정호 감독이 기대하는 선수로 꼽았던 빅틀도 영점 조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골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 초반 결과가 좋지 못하지만 전북은 경험과 막강 전력을 보유한 강팀이다. 송민규·김태환·김진수·문선민·박진섭 등 포지션 마다 대표급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 전북은 사령탑이 물러나고 치른 앞선 강원전에서 이영재, 전병관 등 빠르고 기술 좋은 선수들을 내세워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문선민과 송민규도 버티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부임 이후 첫 3연패에 이어 4연패까지 빠지면서 반등이 절실해졌다. 전주 원정 징크스도 깨야 한다. 전북도 필수적인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면 전북은 구단 역대 최다 무승 기록을 쓰게 된다. 운명의 승부에서 광주가 연패를 끊고 반등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4연패'의 광주가 13일 '무승'의 전북을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앞선 김천전을 통해 시즌을 연 아사니의 발끝에 시선이 쏠린다. <광주FC 제공>

손흥민, 뉴캐슬전서 4위 수성·10-10 달성 두 토끼 잡는다

내일 EPL 33라운드 원정 나서 '압 최초' 3차례 이상 기록 노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4위 수성을 위해 중요한 일전에서 뉴캐슬의 골문을 노린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8시 30분(한국시간)부터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제임스 파크에서 뉴캐슬과 2023-2024 EPL 33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승점 60(골 득실 +20)을 쌓아 EPL 4위를 달리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마지막 선전 4위를 놓고 애스턴 빌라(승점 60·골 득실 +17)와 승점 차 없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매 경기 살아남음만 같은 상황이다. 이번 경기 이후 아스널, 첼시, 리버풀 등 험난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서 토트넘으로선 더 낮은 8위(승점 47)에 자리한 뉴캐슬을 상대로 승점 3이 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토트넘은 지난해 12월 16라운드에서 벌어진 뉴캐슬과의 시즌 첫 맞대결에서 4-1로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당시 손흥민의 맹활약이 뒷받침됐다.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후반 40분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 넣어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고, 도움 2개를 작성해 승리에 앞장섰다. 당시 5경기 무승(1무 4패)에 허덕이던 팀에 중요한 승리를 안기고 4위 경쟁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던 손흥민은 최근 폼도 나쁘지 않아 이번 경기에도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최근 리그 6경기에서 그는 대부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3골 3도움을 올리고 있다. 직전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경기에선 후반 7분 미키 판더펜이 넣은 결승골의 도움을 작성하며 팀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이를 포함해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 누적 공격 포인트는 15골 9도움이다. 득점은 선두 열링 홀란(맨체스터 시티·19골)에 게 4골 뒤진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도움은 파스칼 그로스(브라이턴)를 비롯한 공동 선두 3명(10개)과 단 하나 차이의 공동 4위로, 개인 타이틀 경쟁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특히 손흥민은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이번 시즌 골에 이어 도움도 두 자릿수를 돌파, 2019-2020시



즌(11골 10도움), 2020-2021시즌(17골 10도움)에 이어 개인 통산 3번째 10골-10도움을 달성하게 돼 이 또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EPL에서 시즌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 한 선수는 현재까지 웨인 루니(5회),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퍼드(이상 4회), 무함마드 살라흐, 디디에 드로그바(이상 3회)까지 총 5명으로, 손흥민이 6번째 주인공을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61분 뛰었지만...PSG '역전패'

바르셀로나에 2-3 패

이강인이 선발 출장한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8강 첫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스페인)에 역전패했다. PSG는 11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3-2024 UCL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에 2-3으로 졌다. 준결승까지 진출했던 2020-2021시즌 이후 3년 만에 UCL 8강에 진입한 PSG는 첫 경기 안방에서 팀을 잡으며 17일 원정 2차전의 부담을 안게 됐다. 반면 2020-2021시즌 16강전에서 PSG와 만나 2-5로 패했던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2018-2019시즌 이후 5년 만의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이강인은 이날 PSG의 선발 미드필더로 나서서 후반 16분까지 뛰고 워렌 자이르 에메리로 교체됐다. 이번 시즌 UCL에선 1골 1도움을 기록 중인 그는 이날은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킬리안 음바페와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뎀벨레가 공격 선봉을 이루고 이강인이 비티나, 파비안 루이스와 미드필더진을 구성한 PSG는 전반 37분 먼저 한 골을 내주고 끌려다녔다. 오른쪽 측면에서 라민 아말이 보낸 크로스에 잔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가 몸을 날리며 손을 뻗었으나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흐른 공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하피나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한 골 열세 속에 전반을 마친 PSG는 후반전 시작 6분 만에 두 골을 뽑아내며 전세를 뒤집었다. 후반 3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뎀벨레가 찰러준 공을 음바페가 컷백으로 연결했고, 이를 받은 뎀벨레가 수비를 제친 뒤 왼발 슛을 꽂았다. 이어 후반 6분엔 오른쪽 측면 이강인에게서 패스를 받은 파비안 루이스가 찰러준 공을 비티나가 골 지역 오른쪽으로 달려들며 밀어 넣어 PSG는 전세를 뒤집었다. 후반 16분 PSG는 이강인 대신 자이르 에메리를 투입하고 바르셀로나는 아말, 세르지 로베르토를 중앙 펠릭스, 페드리로 교체했는데, 직후



바르셀로나의 동점골이 터졌다. 후반 17분 페드리가 중앙에서 길게 띄운 공을 비티나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 슛으로 연결해 골 그물을 흔들었다. PSG는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에게 헤더 역전 결승골까지 내주고 말았다.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다른 8강전 1차전에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가 도르트문트(독일)를 2-1로 따돌렸다. 전반 4분 로드리고 데폴, 전반 32분 사무엘 리누의 연속 골로 아틀레티코가 앞서 나갔고, 도르트문트는 후반 36분 세바스티앵 알레가 한 골을 만회하며 홈 2차전을 기약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쿵푸팬더4
2관	파오, 뎃글부대
3관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고질라 X 공: 뉴 엠파이어
4관	쿵푸팬더4, 파오, [보석특기]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5관	뎃글부대
6관	쿵푸팬더4
9관	오멘: 저주의 시작
7관	씨네시네 골드핑거, 뎃글부대, 남은 인생 10년, 오멘: 저주의 시작
8관	씨네시네 남은 인생 10년, 아게인 1997, 1980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